

“전년과 출제경향·방식 동일... 영어 절대평가 영향 지속”

4개월여 남은 수능, 대비책은?

평가원 EBS 교재·강의 70% 연계
영어외 타 영역 반영비중 제각각
한국사 정시 1등급자 가산점 부여
수시 수능최저 3~4등급 내 ‘만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전년과 같은 출제경향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4개월여를 앞둔 수능이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되지만,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영어의 영향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별 영어 이외 타 과목 비중이 제각기 달리 변화되면서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8일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세부계획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8월 23일~9월 7일까지 12일간 이뤄지고, 수능 시험은 11월 15일, 성적표는 12월 5일 통지된다.

수능 출제경향과 방식은 지난해와 동

2019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 7월8일(일)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
- 8월23일(목)~9월7일(금) 원서교부, 접수 및 변경
- 11월15일(목) 시험일
- 11월15일(목)~11월19일(월)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월26일(월) 정답 확정
- 11월16일(금)~12월5일(수) 채점
- 12월5일(수) 성적 통지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하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밝혔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9등급제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두 영역 성적은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영어는 올해도 절대평가로 치러짐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타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예컨대 고려대 자연계의 경우 2017학년도까지 국어(20%), 수학기형(30%), 영어(20%), 과탐(30%)의 반영비율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영어를 총점에서 배제하고 등급별 감점제로 바꾼 대신, 국어(31.3%), 수학기형(37.5%), 과탐(31.3%)로 특히 수학기형 비율을 높였다. 반면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 영어 비중을 줄이고 수학기형과 과학탐구 반영 비율을 똑같이 올렸다. 결국 수능 영어 절대평가 영향에 따라 대학마다 타 영역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이전의 입시 전략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영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타 영역의 비중이 증가해 과거와 다른 입시 선택이 필요하게 됐다”며 “특히 최근까지 자연계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 반영 비중이 비슷할 경우 과학의 높은 점수로 수학의 부족한 점수를 상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사영역을 미응시할 경우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므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 평이하게 출제될 전망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한국사는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논술전형에서 한국사 최소 등급을 지정하는데, 연세대는 등급,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 등은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사는 정시모집에서도 감점을 통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은 정시에서 3~4등급까지 만점을 준다. 특히 경희대처럼 감점·가산점이 아니라 수능 총점에 반영비율로 반영하는 경우 비중은 더 높아진다. 아울러 숭실대·상명대·성신여대 등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 한국사 1등급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머지 국어, 수학기형·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모두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표기된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처럼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시험일이 연기돼 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지진 등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교내 체조무용실에서 열린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 주최 제20회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K팝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외국인 학생·교수 K-팝댄스에 ‘매료’

‘바롬국제프로그램’ 참가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교내 체조무용실에서 열린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 주최 제20회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K팝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여대 BIP는 매년 여름방학 중 4주

동안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교류대학 학생들과 서울여대 교환학생 파견 예정 학생들이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의 역사와 경제, 종교,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권도 체험, 전주한옥마을 답사 등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고교생들과 영화 ‘히스토리’ 관람

일본군 위안부 영화...관람후 토론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여고생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실화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학생들과 역사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후 1시부터 대한극장에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행사를 운영하면서, 조 교육감이 무학여고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실화를 다룬 영화 ‘히스토리’를 관람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히스토리를 제작한 민규동 감독도 함께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영화 히스토리는 1992년~1998년까지 6년 동안 홀로 일본 정부에 맞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중 유일하게 일본이 일본제국시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재판을 다루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하는 무학여고 학생들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참여해왔다.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사원, 9년 일해야 연봉 두배

잡코리아 연봉통계 데이터 사원급 평균 연봉 2976만원

올해 중소기업 사원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9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이 두 배가 되기까지는 약 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직장인들이 직접 등록한 연봉통계 데이터 287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사원급 직장인 평균 연봉은 29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력은 평균 2.4년이었다.

직급별 연봉을 보면, 주임급 직장인 연봉 평균은 3382만원으로 사원급보다 406만원 높았고, 이들의 평균 경력연차는 3.2년이었다. 이어 대리급(4024만원·5.5년



잡코리아 연봉통계 데이터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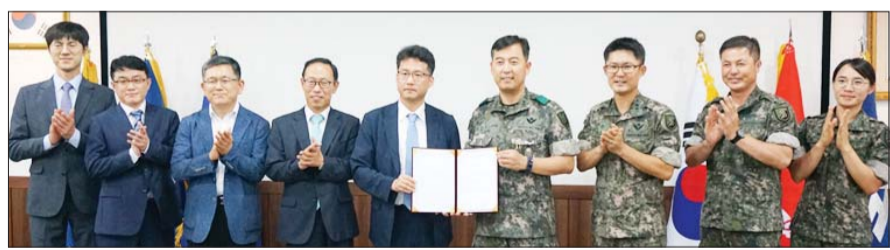
/자료=잡코리아

차), 과장급(5014만원·9.1년차), 차장급(5933만원·11.8년차), 부장급(7682만원·16.2년차) 순으로 연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원급 직장인의

평균 연봉(2976만원)이 두 배(5952만원)가 되는 시점은 차장급(5933만원)과 부장급(7682만원) 사이로, 사원급에서 약 9년이 지나야 되는 셈이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와 제51보병사단이 지난 4일 제51보병사단 사령부에서 학·군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제51보병사단 입학금 면제 등 학·군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일 제51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제51보병사단과 학·군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 지원을 약속했으며, 제51보병사단 간부와 군가족들에게 경희사이버대 학부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제51사단장은 “경희사이버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있는 지식의 세계로 한 발 더 나아가며, 강군 기반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수능·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소개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고졸 취업자 교육과정 4년제 국립대로 확대

교육부가 고졸 취업자를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2022년까지 모든 4년제 국립대에 도입하고 특성화고에도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하는 등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가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이 쉽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도 도입한다.

2022년까지 34개 전체 4년제 국립대가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